

나눔의 달
대강절 셋째 주일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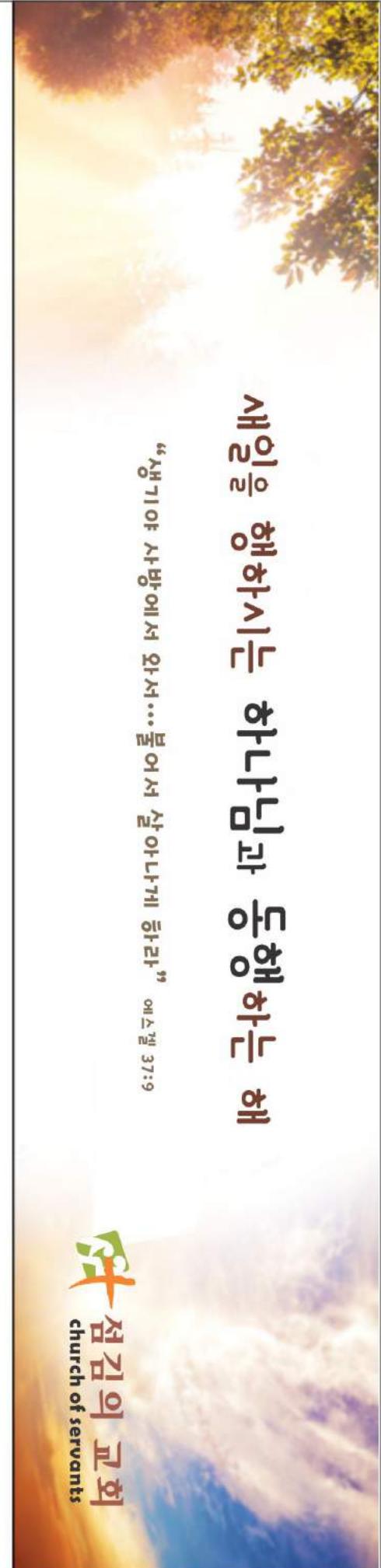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사당을 향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기야 사방에서 오서...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스겔 37:9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예 배 WORSHIP

December 12,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30번 - 시편 67편

찬 송 / 290장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3, 2절
(통일찬송 412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13장 -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통일찬송 352장)

봉 헌 / 김훈태 집사, 구은강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309장 - 목마른 내 영혼 (통일찬송 409장)

성경말씀 / 미가 6:6-8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빌립보서 1:3-11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의 식탁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시다.

1.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대강절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3. 믿음 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실천합시다.
4. 교회 이사를 위한 섬김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5. 지난 두 주일의 연합예배에 이어, 오늘 섬김의 교회 첫 주일예배를 새 교회에서 드립니다.
6. 성경 읽기 소요리문답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7. 토요 새벽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8.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시다.
(오전 11:00 / 인도: 장영현 전도사)
9. 팔레타인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12월의 사역 - 성장과 성숙 주간 (12-18) 대강절 (25 일까지)
성탄감사 주일 (19)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19-25)
성탄축하모임 (24) 성탄절 (25) 선교 주일 (26)
선교 주간 (26- 1/1) 송구영신 (31)

♥ 12월 병원봉사 ♥ 오준하(2) 김훈태(19) 박다현(23) 유덕하(28) 최선윤(30)

기 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업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 배 섬 김 이

주일예배기도	12/5	12/12	12/19	12/26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장영현전도사	구민집사
주일헌금위원	12/5	12/12	12/19	12/26
	구은강집사/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12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믿음으로 살자! / 에스겔 37:1-14, 요한복음 11:25-26 Rev. RJ Kang 목사 (PCOP)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그들은 이국 땅으로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와 처참하게 살았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소망을 약속하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했다. 또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쟁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열 번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세 번 반복 하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다. 에스겔은 기쁨과 활기찬 삶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역동적인 삶의 회복, 이스라엘의 번영을 확실히 믿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팬데믹의 영향 가운데 두 번째 대강절을 맞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자.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굳건히 하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 미가 6:6-8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수송아지를 번제로, 아니면 자녀를 제물로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아니면, 순종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은혜를 보답하자.

말씀요약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 미가 6:6-8

내리사랑은 손아랫 사람을 향한 손윗사람의 사랑이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바울 묻는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 우리가 살아 갈 수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6)라는 질문은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제물 중 가장 값진 송아지를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라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허한 행위가 된다.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제물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드렸으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충고했다. 7절의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기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그 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회개하고 통회하는 상한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좋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실제,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자녀를 우상 몰락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릇된 제사를 모방하려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레위기 (18:21)에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가는 외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8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한다.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이다. 받은 축복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가?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성탄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 드렸나를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지,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돌아 볼 때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삶으로 말해야 진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낚추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내 뜻으로 남겨진 건 진실함으로 내 중심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당부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고전 4:16

그리고 20절에 다시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전 4:20

바울의 권면은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처럼 살라는 강한 권면과 명령의 표현을 썼다.

이것은 ‘나를 흉내 내서 살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삶으로 말해야 진짜다.

결국 말하는 습관과 표정, 행동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내 인상이 되어 자리를 잡는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삼고,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내면’, 이것들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 요일 2:6

그리 오래전이 아닌 1년 전쯤 발견한, 내 삶에 큰 울림과
지침이 된 구절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마땅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전히 부딪히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매일 조금씩 더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태훈, 『깨어진 그릇』

대강절(Ad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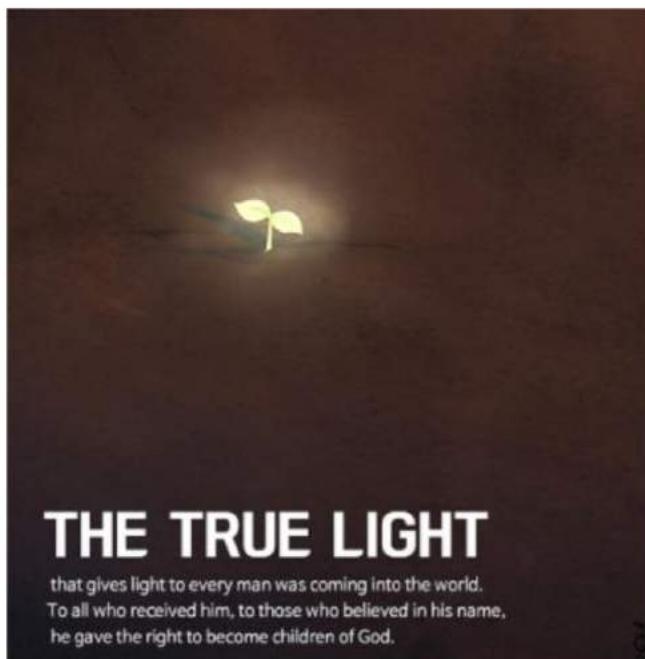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강림절,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세상의 포로생활에 놓여 고통과 암흑 속에 있던 우리를
하루속히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강절 3주째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설렘과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혹시 벼림받은 자는 아닌지를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벼림받은 자니라. (고후13:5)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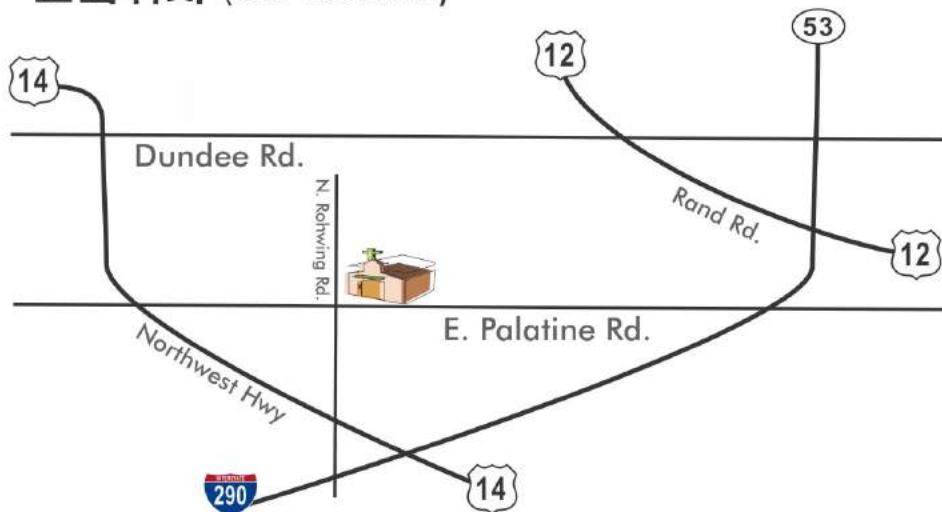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